

(주)동우 농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농가 - 계열사 발전적인 협업체 다짐

편집부

(주)동우 농가협의회(회장 장금일)는 지난 9월 18일 전북 군산 소재 리버힐 관광호텔에서 (주)동우 김수관 대표이사과 임직원, 농가협의회 장금일 회장, (사)한국육계협회 박상연 부회장, 심순택 부회장, (주)하림 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과 동우 계약사육농가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육농가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갈수록 안전성 높은 축산물을 선호하고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신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닭고기를 생산하여 소비자들의 만족과 양계산업의 성장 원동력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장금일 농가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회사는 농가에게 좋은 품질의 원자재를 공급하고, 농가는 그에 따라 최고 품질의 닭을 회사에 납품함으로써 회사와 농가는 상생할 수 있는 것”이라





김종관 대표이사의 축사

며 “이번 협의회 출범식을 통해 회사와 소통하고, 화합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협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동우 김종관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농가와 기업은 수레의 튼튼한 두 바퀴와 같다”며 “이 바퀴가 더불어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알찬 운영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한국육계협회 박상연 부회장은 “이번에 한국육계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육계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공동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농가와 계열사 간에 소통·협력 증진 및 교류를 통한 권익 증진과 아울러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육계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는 (주)동우의 회사소개 및 우수농가, 장기근속농장 포상과 다양한 축하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되어 농가와 회사 모두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장금일 농가협의회장은 “육계협회와 (주)동



(주)동우 농가협의회 장금일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우의 적극적인 협조로 협의회가 발대식을 가지면서 우리 농가 회원님들과 계열사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초석이 다져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자리에서 맺은 협약들을 농가와 회사가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농가와 회사가 함께 공존하며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농가협의회, 5개 지역 10명 운영위원으로 구성

(주)동우 농가협의회는 5개 지역 10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금일 사장을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운영위원은 각 지역별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으며, 1지역(충청) 고천곤 대표, 2지역(전북 북부) 홍성엽 대표, 3지역(전북남부/전남서부) 이현성 대표, 4지역(전남북부) 장금일 대표, 5 지역(전남남부) 서순식 대표와 총무에는 이성우 사장이 선출되어 앞으로 (주)동우 농가협의회를 이끌어 간다. 